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6

4 讲义

55

5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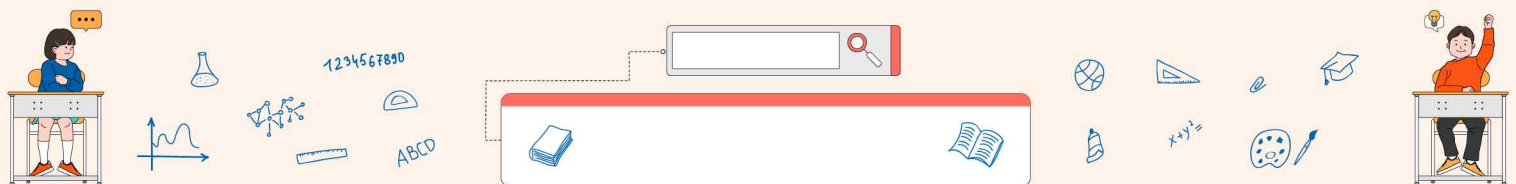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74

6 토론

80

7 자료

82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은 한국의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끌어 낸 학교 교육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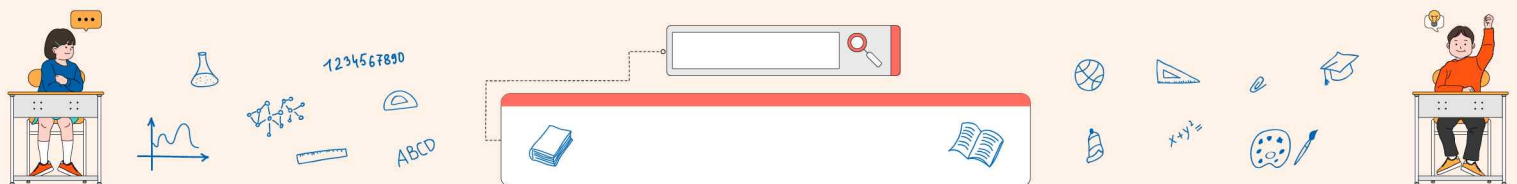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학습목표

- (1) 한국의 정규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제도와 비정규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발전과정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해한다.
- (2) 교사, 재정, 여성의 측면에서 한국 학교 교육이 지닌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한국 학교 교육의 발전 과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 (3) 사교육, 평준화,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한국 학교 교육의 직면한 과제에 대해 탐구한다.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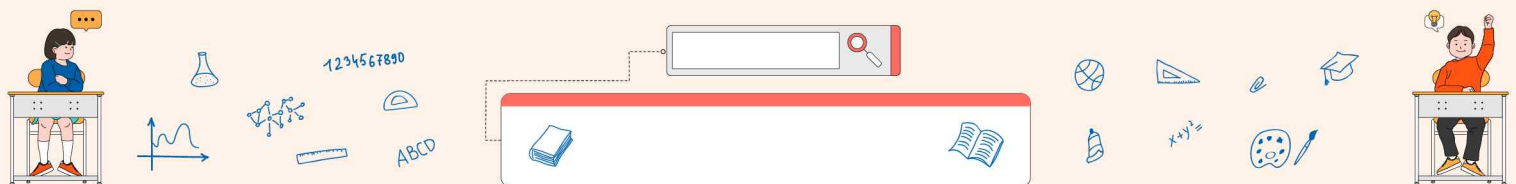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흔히 한국은 부족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이야기한다. 가난한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이 독립 후 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되었지만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데에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상당했다. 이 강의에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가져온 한국 학교 교육의 경험을 주제별로 학습한다. 이 강의가 수강생들이 한국 학교 교육 성공 사례의 배경, 원인,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명암과 현재 남겨진 과제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04

주차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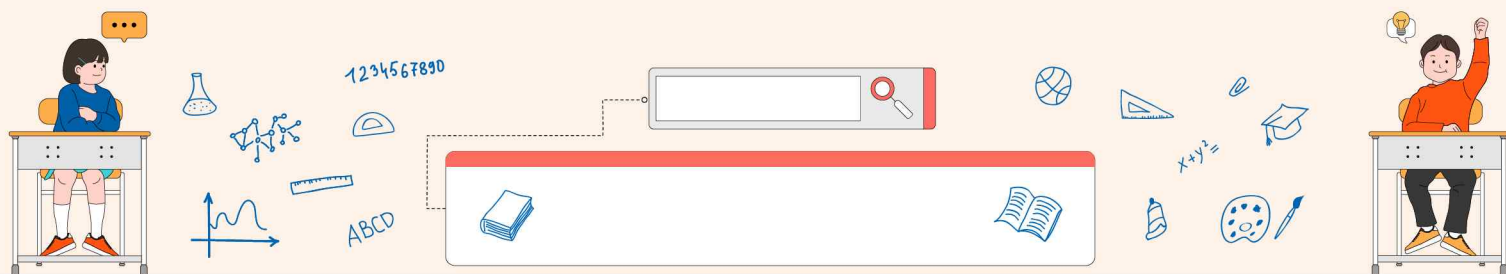
1주차	한국의 학교 교육
2주차	한국 학교교육의 형성
3주차	유아 및 초등교육
4주차	중등교육
5주차	고등교육
6주차	교원
7주차	교육재정
8주차	여성
9주차	사교육
10주차	학교 평준화
11주차	시험성적자료로 살펴본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12주차	학교 밖 학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2

주차

학교 밖 학교

12-1

비정규 학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학교 교육 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예외적인 극소수를 제외한다면 학령에 따라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과거에는 모든 이들이 학교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 또는 교육의 시기를 지나친 성인을 위한 비정규 교육기관들이 그동안 다양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우선 어떠한 비정규 학교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정규 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입니다. 정규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한 교육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려고 하는 학교들은 이러한 정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초등 및 중등 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면서도 초·중등 교육기관으로 법에 규정된 학교들이 먼저 있습니다. 바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1949년 제정 교육법에서도 이미 초·중등 과정 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고, 법령에 시설, 학급당 교원 수, 운영방식 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민학교는 초등 과정, 고등공민학교와 기술학교는 중학교 과정, 고등기술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들을 졸업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학령이 지난 사람들, 또는 초·중등 교육 학령에 해당하지만,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의 종류에는 각종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도 아닌 학교들을 묶어서 함께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학교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모든 학교들이고, 각종학교 자체가 특별한 성격이나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각종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종류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정규 학교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운영될 때 각종학교의 형태로 분류되었습니다. 역사 속 예로는 청소년직업학교, 전수학교 등이 있습니다. 실업학교, 전문학교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학교, 학업 중단 아동 청소년이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등도 각종학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는 나중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학교로 승인됩니다.

이외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는 비정규학교도 한동안 흔했습니다. 야학이나 사설강습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통 교육기관인 서당도 이러한 비정규학교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비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추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보통 검정고시라고 불렀습니다. 검정고시는 비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이외에도 학업 중단 아동 및 청소년들도 응시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 등 사설 학원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비정규 초·중등 과정 교육기관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나머지 각종학교와 미등록 비정규학교들은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과정 비정규학교였습니다. 주로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령을 초과한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공민학교는 해방 이후 1946년 5월에 공민학교 설치요강이 제정되면서 공식화됩니다. 처음에는 소년과, 성년과, 보수과의 세 과로 나누어졌습니다. 소년과의 입학 대상은 13세 이상이었고, 2년제 또는 3년제였습니다. 초등학교와 거의 동일한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성년과의 입학 대상은 연령층이 더 높은 18세 이상이었습니다. 1년제 또는 2년제였고, 공민, 국어, 산수 등 일부 교과만을 집중교육했습니다. 보수과는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즉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1년제 학교였습니다. 보수과는 나중에 고등공민학교로 개편됩니다.

공민학교는 시, 읍, 면, 동, 리 등 지방행정청에서 공립으로 설립할 수도 있었고, 독지가나 사회단체가 사립학교로 설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읽기 및 셈하기 등을 가르치는 데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초등교육도 오랫동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해방 이후에는 무학 성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공민학교도 기초 문해교육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점점 수요가 줄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서울 YWCA 기청공민학교가 2012년 폐교되면서 더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도 2019년 폐지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 비정규 학교입니다. 1946년 공민학교 보수과로 시작되었고, 1948년 미군정에서 고등공민학교 규정을 제정하면서 출범합니다. 1949년 제정 교육법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채 학령을 초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규정됩니다. 수업 연한은 1년제부터 3년제까지 다양했고, 수업 연한에 따라 중학교 교과과정의 내용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등공민학교도 공립과 사립 모두 설립될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사립학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립 고등공민학교들은 재정난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며 몇 년만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학교 교육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때에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며 공립을 전환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고등공민학교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기준 3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아직 남아서 운영 중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해방 직후 공민학교는 폭발적으로 설립됩니다. 1946년에 8,287개였고, 1947년에는 15,506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령 정비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1953년에는 3,000여 개로 줄었고, 초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서 꾸준히 감소합니다. 마지막 공민학교는 2012년에 폐교되었고, 이제 더이상 공민학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등공민학교는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에 689개가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도 500여 개의 고등공민학교가 운영되었지만 이후 수가 300여 개 내외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사립 고등공민학교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공민학교의 수는 중학교 교육이 충분히 확산된 197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합니다. 2022년에는 전국에 3개의 고등공민학교가 남아 운영 중입니다.

기술학교는 정규 중학교와 병행하여 기술 및 실업계열 인력양성과 확보를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즉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었고, 수업 연한은 1년부터 3년까지 다양했습니다.

1949년 제정 교육법에서 처음 규정했고, 농업, 공업, 수산, 기타 네 부문에 총 69개 과가 설치되었습니다. 1977년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 공업, 수산·해운, 기타에 더해 상업과 가사·실업 분야가 신설되었고, 설치과가 조정되어서 6개 부문 총 51개 과로 개편됩니다. 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을 하거나 고등기술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기술학교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꾸준히 증가하여 1965년에는 81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이 보편화되면서 1970년대 후반에 빠르게 줄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술학교가 1996년에 폐교하며 더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폐지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고등기술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의 기술학교였습니다.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 및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생 또는 3년제 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었고, 수업연한은 1년부터 3년까지 다양했습니다.

고등기술학교도 1949년 제정 교육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기술학교와 마찬가지로 농업, 공업, 수산, 기타의 네 부문에 총 69개 과가 설치되었습니다. 1977년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업 부문과 가사 실업 부문에 추가되며 총 6개 부문으로 개편되었고, 설치과도 확대되어 총 74개 과가 운영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약 70개의 고등기술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의 팽창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확대와 맞물려 전문계 고등학교로 점차 전환되면서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총 7개의 고등기술학교가 남아서 운영 중입니다.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통해 합격할 경우 해당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해방 후 1948년에 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독학한 사람들에게도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했습니다. 이후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가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시험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름도 보통 줄여서 대검, 중검, 고검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학자격시험이 아닌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검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검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검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1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1,788명,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942명이었습니다. 2013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13,652명,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4만 5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가 더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입시제도의 변화와 관련있습니다. 대학입시제도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이 늘어날 때 외국어 고등학교 등 내신 성적 경쟁이 상대적으로 더 치열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증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초·중등 과정 비정규 학교들의 종류를 소개하고, 그 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고등공민학교와 기술학교는 중학교, 고등기술학교는 고등학교를 대신하는 비정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들은 졸업하더라도 학력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연계는 되어 있어서 공민학교 졸업 후 고등공민학교로 진학한다든지 기술학교 졸업 후 고등기술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학교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초·중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검정고시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검정고시 제도는 독학을 한 경우에도 상급학교 진학을 허용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이제는 그보다는 초·중등 과정 각급 학교의 졸업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늘어났는데 특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종학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12-2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비정규 학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종 학교 또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는 비정규학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들도 초·중등 정규 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많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생적으로 탄생했고, 일부 야학처럼 작은 규모로 자율 운영되는 경우, 사실 법률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정규 학교도 아니고, 법에 규정된 공민학교 등에 속하지도 않으면서도 종종 공식적으로 법률에 따른 초·중등 과정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도 있었는데, 각종학교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법률상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의 보편적 확산이 완성되고 난 이후 초·중등 과정에 대한 교육은 일부 학교를 가지 않은 성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평생교육법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종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각종 학교로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여러 요건을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초·중고 졸업학력 인정기관이 되기도 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외의 학교들도 각종학교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기타 범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초·중등 과정 각종학교들은 보통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했고,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청소년직업학교, 전수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보통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통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은 일정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학교처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들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졸업학력 인정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력 미인정 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다만 외국 거주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학교는 국어 등 교육과정 요건과 해당 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39개의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외국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제반시설 마련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됩니다. 즉,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여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초·중·고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은 2022년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각각 한 개씩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해외 대학이 설치한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도 4개가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 운영되는 학교이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특별법이 있어, 제주도에에서만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는 초·중·고 과정 국제학교는 4개입니다.

대안학교는 정규 학교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꾸는 대안 형태의 교육을 제시하며 실시하는 학교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전일제 대안학교가 등장했고, 1998년부터 일부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처음에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대안학교로 나누어졌는데, 2012년 이후 모든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주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컫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중에서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된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특성화중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들은 각종학교에 해당합니다. 각종학교인 대안학교들도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가 되어 정규 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 미인정 학교이므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도시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보통 학교 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이러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선별하여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도시형 대안학교라고 불립니다.

한편 일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대안교육을 희망할 때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대신 위탁을 받아 교육하고, 나중에 졸업은 원래 다니던 원적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는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가 대안학교, 즉 학력인정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는 총 50개교입니다. 공립 학교가 22개교, 사립학교가 28개교입니다. 학교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중학교는 총 19개교이고, 공립학교가 5개교, 사립학교가 14개교입니다.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립학교 5개교, 사립학교 20개교 등 총 25개교입니다.

미인가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자생하여 자율 운영되므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총 287개입니다. 한편 도시형 대안학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2022년 현재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총 57개입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군사정부는 재건국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운동으로, 각 지역조직을 결정하여 교육사업, 봉사활동, 선전·계몽활동, 생활개선사업 등을 펼칩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고, 이어진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군정세력이 결성한 민주공화당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64년 재건국민운동을 주도하던 재건국민운동본부를 해체하고, 대신 재건국민운동중앙회를 발족합니다.

이 재건국민운동중앙회는 재건학교 규정을 제정하고 전국에 재건학교 설립에 나섭니다. 아직 중등교육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던 시기에, 재건학교는 중등교육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건학교는 미진학 근로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간 또는 야간의 3년 과정이었는데, 2년 동안 교과 교육을 하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수업료는 무료였고, 교사들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1975년에는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학교의 지도와 감독 기능은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승계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1976년 재건학교의 명칭을 새마을청소년학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교를 표방합니다. 여전히 주간 또는 야간의 2년제 또는 3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재건학교, 그리고 새마을청소년학교는 관 주도의 봉사시설처럼 설립되어서 꾸준한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독지가의 후원이 필요하기도 했고, 학교를 헌신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갖추어야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 1986년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 감독 사업도 종결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새마을청소년학교는 사회교육 시설 또는 민간 야학으로 이어졌거나, 아니면 자체 소멸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각종학교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직업학교는 고교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및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966년부터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설치하여 운영했고, 종종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 설비, 교원을 활용했습니다.



전수학교는 1970년대부터 고교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치되었는데, 실업계고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비정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상업전수학교, 공업전수학교, 실업전수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비정규학교들은 자생적으로 설치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사회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교육법상의 각종학교 지위를 획득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평생교육법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개념이 규정됩니다. 말 그대로 학교 형태로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을 뜻하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학력인정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여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은 3개 기관이고 학생은 총 717명입니다. 중학교 과정은 5개 기관이고, 학생 수는 1,505명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22개이고 학생 수는 7,135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여러 초·중등 과정 각종학교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초·중등 학교 중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는 각종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 초·중등 교육 기회를 놓친 청소년을 위한 각종학교들이 있었는데, 재건학교, 새마을청소년학교, 청소년직업학교, 전수학교 등입니다.

한편 2000년 이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졸업학력 인정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에 규정하여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체 부설학교와 원격교육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3 산업체 부설학교와 원격교육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는 비정규학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특수한 교육기관들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여러 특례를 받으며 산업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야간제 중등교육기관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한동안 증가했다가 지금은 더이상 명맥이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설립하여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에 종사 중인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산업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1974년 한일합섬이 설립한 마산의 한일여자실업학교, 충남방직이 설립한 천안의 충남방직 실업학교가 첫 산업체 부설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산업체 부설학교를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직, 봉제 등 경공업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노동력의 공급이 중요했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 수준으로 인해 이직이 잦고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중학교를 졸업하는 영세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일자리와 학교 교육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며 노동력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업학교로 설립되었지만, 1976년에 교육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되면서 1977년부터는 정규 야간 중고등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제도적으로 여러 혜택을 받으며 1980년대까지 활발히 운영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없이도 설립이 가능했고, 야간제로 교육과정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이 일반화되고, 산업체 부설학교를 운영하던 경공업 산업이 쇠퇴하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일부 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로 전환되었고, 몇몇 학교들은 사업체의 경영난 속에서 폐교됩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단독으로 산업체 부설학교를 설치해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산업체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야간제로 운영했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원격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규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수업은 EBS를 이용한 방송강의, 컴퓨터 통신학습 e러닝, 출석수업,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력학습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매 학년마다 20일 이상, 즉 한 달에 두 번 이상 출석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출석수업은 하루 여섯 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주말에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의 11개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2012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근거 법령을 만들었고, 2013년 공립학교 부설로 처음 개교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수와 이 학교들에 설치된 총 학급수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왼쪽 세로축이 학교 수, 오른쪽 세로축이 학급 수를 나타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는 1970년대 말에 40개, 1980년대 초에 50개에 달했다가 이후 다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약 40여 개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학급 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도 2013년 처음 설립된 이후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학교 수는 24개, 학급 수는 200개입니다.

원격 고등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처음에는 2년제 초급대학 과정이었습니다. 가정학과, 경영학과, 농학과, 초등교육과, 행정학과의 5개 학과를 설치했고, 입학 정원은 12,000명이었습니다.

1981년에는 학사과정 대학교로 개편되고, 수업연한은 5년제가 됩니다. 1982년에는 서울대학교로부터 분리 독립했고, 경제학과, 법학과, 영어과, 유아교육과를 증설했습니다. 1991년에는 다른 대학교와 같은 4년제로 개편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제 총 36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의 재학생 수는 96,748 명인데 그중 여자가 2/3 정도로 더 많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원과 경영대학원도 운영 중 입니다.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출석강의를 모두 활용하는데, 온라인으로만 100% 진행하는 프라임 칼리지도 다섯 개 전공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사립 원격 고등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교도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처음 출현했습니다.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2008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기관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에는 총 19개교의 사이버대학이 운영 중입니다. 17개가 대학 학사 과정, 2개는 전문대의 전문학사과정입니다. 재적학생 수는 총 145,934명이고, 이 중 여성의 비율은 약 58%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체 부설학교와 원격교육기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에서 설치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산업체 부설학교에 가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격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 방송통신중학교는 2013년 문을 열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원격 고등교육 기관인 사이버대학교도 200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야학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4 야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특수한 교육기관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야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학은 한국의 자생 자율 독립 비정규 교육기관입니다. 자생적으로 탄생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이나 운영에 있어 대개 독립되어 있었으며, 초·중등 학교 교육의 바깥에서 이루어졌던 비정규 교육기관을 보통 야학으로 통칭했습니다.

야학은 구한말부터 등장했던 기록이 남아있고, 식민지기, 전쟁기, 산업화와 경제성장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며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야학이라고 하면 보통 밤 '야'자를 쓰는 야간학교의 줄임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학이 항상 밤에만 수업하는 교육기관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낮에 운영되는 야학들도 있었고, 그러한 학교들의 이름은 바깥에서, 들판에서 교육을 하는, 또는 정규 학교 밖에서 교육을 하는 야학의 뜻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학은 단순히 야간학교로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하고 진화해 온 민중교육, 풀뿌리교육, 그리고 독립 비정규 교육의 대표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야학은 구한말, 식민지기에도, 해방 이후에도, 산업화 시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시대상에 맞추어 변화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야학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과 식민지기는 아직 초등교육의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학교 교육은 대개 선택받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지식인들은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농촌과 도시에서 직접 학교를 세워 글읽기, 글쓰기 등 기초 문해교육을 펼쳐 나갔는데 이러한 자생적인 비정규 학교들이 한국 야학의 원형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브나로드 운동이 펼쳐지면서 야학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됩니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어로,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민중 계몽운동을 뜻했습니다.

1930년대가 되며 식민지기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민중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출발점은 문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 야학을 차리고 한글 교습을 펼칩니다.

조선총독부는 민족주의의 성향을 지닌 브나로드 운동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직접 농촌진흥운동을 펼쳐 브나로드 운동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나로드 운동은 1935년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운동에서도 강습소를 세워 문해교육을 펼쳐 나갔습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는 이 시기의 농촌 야학운동을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학은 공식 기록에는 종종 사설강습소로 등장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기회도 여전히 제한되어 있던 시기에 야학의 설립과 운영은 계속됩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이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정부 주도로 재건학교와 새마을청소년학교가 세워집니다.

당시 정부에서 벌였던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이 학교들도 일종의 야학이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 독지가들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학교들을 관제야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진은 1971년 충남 논산재건학교의 졸업식 기념사진입니다. 뒷배경에 보이는 문구로 '배우며 일하자'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야간 과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오른쪽에 '2년 동안'이라고 쓰여진 데에서 미루어 봤을 때 2년제 과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면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공장이 있는 도시로 옮겨와 취업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학도 활발하게 세워집니다.



사진은 부산 범일동 '누나의 길' 벽에 전시된 사진입니다. 이 길을 통해 인근 마을에서 식민지기때부터 196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큰 공장인 조선방직과 근처 신발공장으로 여공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는 앓된 여학생들이 앓아 있고, 남자 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기초 한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학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지 앓은 어린 여공들에게 한글 문해교육을 앓던 꽤 이른 시기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당시 스물 두 살이었던 청년 전태일은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죽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었던 전태일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이른 나이부터 청계천 평화시장 일대 봉제공장에서 재단 보조와 재단사로 일했습니다.

전태일은 봉제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측과 정부 모두로부터 탄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태일의 분신은 당시 사회운동에 참여하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현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일부는 어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세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펼쳐 나가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공장 근처 또는 근로청소년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세워진 야학들을 노동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 대학생 지식인들이 선도하는 방식보다 근로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고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야학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야학은 생활야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는 야학들은 검시아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전에 재건학교, 새마을청소년학교였던 야학은 재건야학, 새마을야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야학들이 서로 완전히 구분되고 배타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은 1970년대 청계천에 있었던 야학의 수업 광경입니다. 청계천 일대는 서울에서 작은 봉제공장들이 밀집해 있었던 곳입니다. 비슷하게 남산 주변의 명동이나 신당동에도 봉제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야학들이 있었습니다. 봉제공장에는 미싱사 또는 미싱보조인 여성 근로자들이 많았지만, 재단사 또는 재단 보조인 남성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1990년대가 되면 청소년 근로자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봉제산업 등 경공업 공장들이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야학들도 변화를 겪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많은 야학들이 2000년대에 들어오며 문을 닫았고, 남은 야학들은 어릴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성인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문해교육 및 뒤이은 초·중등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사진은 서울 상록야학에서 성인 여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Zoom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한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야학들도 2000년대에 들어와 많이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특수교육 여건이 아직 충분치 않아 학교 교육을 누리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야학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몇 장애인야학들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의 수업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야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야학은 한국의 자생 자율 독립 비정규 교육기관입니다. 민중교육, 풀뿌리교육, 독립 비정규교육이 한국에서 펼쳐진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학은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았던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했습니다. 이르게는 구한말부터 등장했고,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에도 다수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설립하는 야학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1970년대 이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 청소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야학, 생활야학, 검정고시 야학 등의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초·중등 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된 요즘에는 성인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 문해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야학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난 12주 동안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야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12주 동안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한국의 학교 교육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로 한국의 초·중등 및 고등교육이 성장해 온 과정을 살펴봤고, 배경이 되었던 역사적인 상황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첫 주와 둘째 주에는 한국의 학교 교육 제도와 형성 과정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및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변모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교원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각각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남녀 간 교육 격차의 해소, 사교육 문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쟁점들을 토의했고, 여러 시험 성적자료로 한국 학교 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은 학교 밖 학교, 즉 다양한 비정규 학교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대 이전에도 서당, 성균관 같은 학교 교육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교육이었고,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보편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전체 인구의 인적자본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정부는 관심이 없었고, 낙후된 농업 중심경제에서 기초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한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해 교육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대적 학교 교육을 실시해 나갔습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대중의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식민지기 동안 이러한 변화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커졌지만, 그만큼의 학교 교육이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식민지 정부도, 교육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할 지주들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률도 낮고 경쟁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이후 식민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학교 교육 투자가 늘어나며 식민지기 말에 남성에 대한 초등교육은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교육투자에 나섰습니다. 1950년대 말에 무상 의무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이 차례차례 보편적으로 확산했습니다. 중간에 학교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 비정규 학교들이 설립되어 간극을 메꾸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학교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져온 주요인이었고, 적극적인 교육정책으로 확대한 초·중등 및 고등교육은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한 인적자본 축적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보통신 기술혁신, 인공지능 개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초·중등 및 고등교육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책 입안자와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한국의 학교 교육이 그동안 수행한 긍정적인 역할들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은 그동안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적인 팽창은 이제 세계적으로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 및 이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점수도 전 세계에서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수준도 상당합니다. 교원에 대한 급여수준도 높아 우수한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학교 교육이 당면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사교육이 팽배하였고, 시간과 돈을 아이들의 교육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입시경쟁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그리고 학교 간, 지역 간에 확대되고 있는 교육 격차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는 교육개혁을 적절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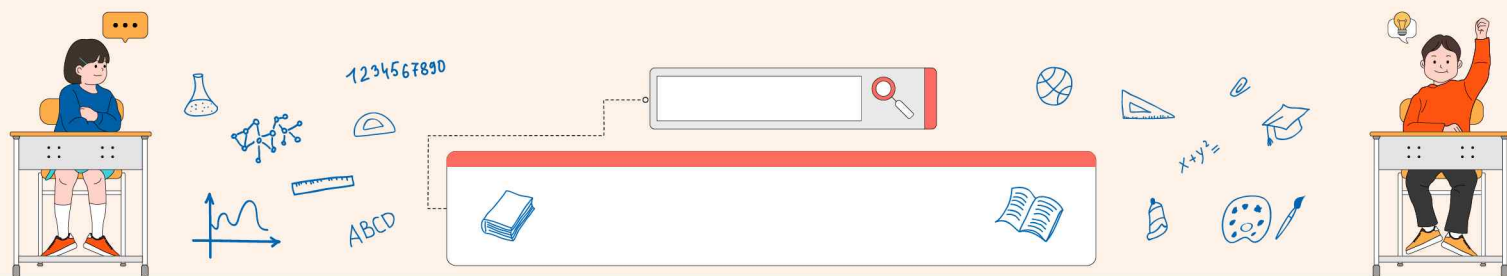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지난 12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2

Out-of-school Education

12-1

Non-formal Schools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My name is Go Sun. We will discuss education that has been in place out of the school education system. Excluding only a few exceptional cases, all school-age children and teenagers go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However, it was not the case in the past as discussed. Not all citizen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study. There have been various non-formal educational organizations and programs designed for out-of-school children and teenagers and adults missing out on school when younger. Let's start with these diverse non-formal schools.

Non-formal education is a form of education outside of the formal school system. Formal education is provided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us, we will focus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ing programs provided outside these formal schools.

Some types of schools are not formal, defined a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relevant law. They are civic schools, civic high schools, trade schools and trade high schools. Even the Education Act enacted in 1949 stipulated that these schools were also consider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organizations, and clarified provisions on their facilities, the number of teachers per class and operational principles. Civic schools were in charge of elementary schooling; civic high schools and trade schools were designed for middle school education; and trade high schools provided high school programs.



However, graduates of these schools were not recognized as having a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diploma. These schools were only established and operated to help educate adults who did not attend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during the school-age period, or school-age students who could not afford formal education.

The Education Act also recognizes other schools of various types. These miscellaneous schools are out of the formal school system. They are not civic schools, civic high schools, trade schools or trade high schools. Thus, miscellaneous schools are all other kinds of schools than those specifically defined by law. It was not that the term represents any particular characteristics or meanings.

Their types and forms were not specified by law. There were some provisions that they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equivalent to those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us, various non-formal schools were classified as miscellaneous schools when they officially registered to operate. There used to be vocational training schools for youth and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Some schools were named vocational schools or specialized schools.

The various schools include foreign schools for expatriates living in Korea and alternative schools designed for dropouts or students who want to receive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s. Foreign schools and alternative schools can be recognized as an equivalen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f they meet legal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lso, non-formal schools prevailed for a while. They autonomously opened and operated without registering with the government or local municipalities. Yahak schools or private learning centers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Seodang, a traditional village-based school, is also a form of non-formal education.



Non-formal school students whose diploma was not legally recognized were supposed to take the state-run examination to attain an equival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diploma. The test was often referred to as an equivalency examination. Equivalency examinations were taken by non-formal school students and school dropouts. They would often take lessons in private cram schools such as preparatory institutes for equivalency exams.

In this lecture, we will talk first about civic schools, civic high schools, trade schools and trade high schools, legally specified as non-forma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s. Also, we will look at the equivalency test system. The next lecture will handle miscellaneous schools and unregistered non-formal schools.

Civic schools were non-formal schools with elementary school programs provided. They usually taught people who did not attend elementary school during school age years. The schools were officialized when their installation requirements were enacted in May 1946 after liberation. At first, there were three divisions for teenagers, young adults and supplementary education. Teenagers aged 13 and above belonged to the first group and received 2 to 3 school years of education. The division provided almost the same programs as elementary schools.

The division for young adults taught those aged 18 and above. It took one to two years to complete the course. The program only focused on some subjects such as civics, the Korean language and arithmetic. The division for supplementary education accepted elementary school graduates aged 13 and above. It provided a one-year complementary program to students who failed to advance to middle school. This division was reshaped into civic high schools.



There were both public and private civic schools. Local authorities founded the former in cities and Eup, Myeon, Dong and Ri areas, and philanthropists and social organizations built the latter. Civic schools, designed for those who did not receive elementary education, aimed to impart basic disciplines such as writing, reading and arithmetic.

As elementary education was long restricted under Japanese rule, many adults were found illiterate after liberation. Civic schools played a considerable role in promoting basic literacy skills. They have become less popular with the wider public having better access to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eoul Y.W.C.A. Civic School, the last of its kind in Korea, was closed down in 2012. Related provisions regarding civic schools were removed in 2019 from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Civic high schools are non-formal schools equivalent to middle schooling. Derived from the division for supplementary education in 1946, they were founded by the U.S. military-run government in Korea, which enacted related regulations on civic high schools in 1948. The Education Act enacted in 1949 specified them as targeting elementary graduates who did not go to middle school but exceeded the school age.

They were also allowed to be publicly or privately run. In the early years, private schools outnumbered public ones. However, many civic high schools were likely to close down in some years after financially struggling.

At a time when middle school education was not prevalent enough across the nation, the government financed private civic high schools to transform them into public ones. With middle school education widely common, the number of these schools has declined. As of 2022, 3 civic high schools are still in operation in Korea.



The graph shows the changes in the numbers of civic schools and civic high schools. After liberation, civic schools grew exponentially. The number of civic schools rose from 8,287 in 1946 to 15,506 in 1947.

After the consolidation of statutes and the Korean War, the number was reduced to 3,000 or so in 1953. It continued to go down with the promotion of elementary education. The last civic school was shut down in 2012. It became a thing of the past.

According to historical references, there were 689 civic high schools in 1950 shortly before the Korean War. Even right after the Korean War, 500 civic high schools were operating. Afterward, the total number of schools had ups and downs, around 300 or so. As said earlier, when many civic high schools financially struggled or closed down, the government provided finances or transformed them into public schools.

The number of civic high schools constantly declined starting from the 1970s when middle school education became prevalent enough. As of 2022, 3 civic high schools are still in operation.

Trade schools were founded to provide middle school-level education with the aim of nurturing talented students i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areas. They accepted primary graduates who did not go to middle school or civic school graduates, running one to three school years.

First prescribed in the Education Act in 1949, they ran four divisions for agriculture, industrial technology, fishery and others and 69 departments.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revised in 1977, commerce, home economics and vocational education were newly added to the existing four divisions. As a result, six divisions and 51 departments were newly introduced into the system. Trade school graduates got a job or went to trade high school.



The number of trade schools continuously rose after the Korean War was over, reaching 81 in 1965. As many elementary school graduates normally went to middle school, trade schools dropped in numbers around the late 1970s. The last of its kind was closed down in 1996. Afterwards, related provisions were removed from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rade high schools were trade schools at the high school level. They taught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to people who did not attend formal high school. Middle school graduates or graduates of three-year trade schools were qualified to join. However, it took one to three years to complete the course.

Trade high schools were first prescribed in the Education Act enacted in 1949. Just as trade schools, they ran 4 divisions for agriculture, industrial technology, fishery and others; and 69 departments.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revised in 1977, commerce as well as home economics and vocational education was added to make the new system run 6 divisions and 74 departments. From the 1960s to the early 1970s, around 70 trade high schools were in operation.

With high school education on the rise and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s growing in the late 1970s, they were transitioned to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s, thus decreasing in numbers. As of 2022, 7 trade high schools are in operation.

Those who did not finish formal school education can take equivalency examinations and be assigned the equivalent academic qualification of the school level for which they take the test if they pass the exam. They can take equivalency tests at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college entrance was first introduced in 1948. It aimed to give out-of-school, self-taught students an opportunity to attend college. Afterward, it was followed by the equivalency examinations for college,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entrance qualifications. As the names imply, these school systems gave a chance to receive the next level of education without a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diploma.

They were shortened to daegeom, junggeom and gogeom in Korean. However, they were renamed as equivalency examinations for graduation, not for entrance qualifications. Daegeom was changed to the equivalency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for high school graduation; junggeom to the equivalency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for middle school graduation; and gogeom the equivalency examination for qualification for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The number of students who passed the equivalency examinations has grown constantly since the 1970s. In 1971, 1,788 examinees passed the equivalency examination for middle school graduation, and 942 students passed that for high school graduation. As of 2013, 13,652 passed the former, and 40,511 passed the latter.

The number of students passing the equivalency test for high school graduation rose dramatically compared to those passing the test for middle school graduation. This resulted from the changes to the school entrance system. Around the time when GPAs in high school became significant in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some students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or other competitive schools for GPAs decided to drop out and take the equivalency examination. On a different note, the number of students who did not finish high school increased greatly.



We have reviewed Korea's non-formal school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Among them, we detailed civic schools, civic high schools, trade schools and trade high schools. Civic schools were equivalent to elementary schools. Civic high schools and trade schools were other versions of middle schools. Trade high schools substituted for high schools.

Diplomas of these schools were not given recognition as educational credentials. Nevertheless, as they were associated with one another, civic school graduates could go to civic high schools, or trade school graduates could advance to trade high schools. They complemented formal education when schools did not serve fully. However, they became obsolete with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preading.

We also talked about the equivalency examination system. It was first introduced to allow self-taught students to advance to higher educational levels. Nowadays, they give students a chance to obtain qualifications for graduation at each school level.

The number of people who passed the equivalency examinations has constantly risen since the 1970s. Those who passed the exam for qualification for high school graduation saw a remarkable increase. In the next lecture, we will review miscellaneous schools.



12-2 Miscellaneous Schools an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Hello, everyone. In the previous lecture, we looked at non-formal schools. This lecture will take a closer look at miscellaneous schools or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which are also part of the non-formal school system.

Other types of schools than civic schools, civic high schools, trade schools and trade high schools also appeared in large numbers until formal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ere commonly accessible. They were created spontaneously for various reasons. It did not matter how to legally prescribe small-s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such as some yahak schools.

However, although some schools were neither formally run nor categorized into the prescribed forms of schools, such as civic schools, they had to gain legal recognition as elementary or secondary educational organizations.

Afte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became common enough, equivalent programs were provided to adults who did not attend school. They started representing lifelong education. Afterwards, the Lifelong Education Act prescribed school-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We will also deal with school-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Miscellaneous schools are equivalent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oreign and alternative schools are categorized into these schools. Depending on how many requirements these schools meet, their diplomas are sometimes recognized as educational credentials.



Other schools than these schools can be classified as miscellaneous schools but they are not specifically described by law. They are considered part of other categories. In the past, miscellaneous school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were created spontaneously and referred to differently. Vocational training schools for youth and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were part of them. Their diplomas were not officially recognized after graduation. Graduates of these schools were required to pass the equivalency examination to advance to the next level.

School-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re also prescribed in the Lifelong Education Act. School-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can be registered with superintendents to run just as normal schools do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facilities and the like. If they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their diplomas can be officially recognized as well, although there are many in operation with their diplomas not recognized officially.

Foreign schools are designed for expatriates living in Korea. However, Korean nationals can attend foreign schools if they live overseas for over three years.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curricula on the Korean language and others, and their teachers are qualified as required by law, their diplomas can obtain official recognition as educational credentials. As of 2022, there are 39 foreign schools in operation nationwide.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in place in Korea to provide relevant facilities to boost foreign investment. Simply put, they aim to improve living environments among expatriates in Korea.

As of 2022,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and the Daegu Gyeongbuk Free Economic Zone (DGFEZ) each have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re are fou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higher education installed by overseas universities in the IFEZ.



International schools exist as well. Founded based on special acts, they aim to help Korean citizens improve language competency and nurture specialized skill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re is special law only applicable to Jeju Island where international schools are allowed to open and operate. As of 2022, there are 4 international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lternative schools were devised to tackle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the formal school system and provide a new educational solution. In the late 1990s, full-time alternative schools first opened. Some were designated as specialized high schools starting from 1998, getting their diplomas recognized officially.

Specialized high schools were divided into schools for vocational training and alternative schools. In 2012, all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s were categorized as specialized high schools. Thus, specialized high schools as we know them today are often called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s. There are some alternative schools for middle school education designated as specialized middle schools.

Alternative schools, which are neither specialized middle schools nor specialized high schools, are classified as miscellaneous schools. Those schools also gain approval to make sure their diplomas are considered educational credentials if they meet requirem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formal educational curricula. Graduates of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are not considered equivalent graduates of formal schools. They are required to take equivalency examinations to advance to the next level.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in cities often help educate students who leave school. Seoul City and other self-governing authorities select and finance some of these schools, which are referred to as urban alternative schools.



If students in formal school desire alternative education, they can be consigned to some alternative schools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later return to the original school for graduation. These are called alternative consignment schools.

As of 2022, there are 50 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the diplomas of which are officially recognized. Among them, 22 are public schools and the remainder of 28 are private schools. Depending on school curricula, they provide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education, or combined courses.

Out of 19 specialized middle schools that provide alternative education, 5 are public schools, and the rest of 14 are private schools. Among 25 specialized high schools for alternative education, 5 are public and the others are private.

Alternative schools, whether not yet authorized or unauthorized, are autonomously operated, thus making it hard to figure out the status of these schools. According to a status report publish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8, a total of 287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were in operation. As of 2022, 57 alternative educational organizations are registered in Seoul City's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in charge of providing support to urban alternative schools.

The military government mounted the National Reconstruction Movement right after the May 16 coup. Led by the government, this nationwide movement set up each regional organization to carry out educational projects, charity programs, promotional and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life enhancement efforts.

After Park Chung-hee was elected President in 1963, the national elections, which were subsequently held, brought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form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to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In 1964, the National Reconstruction Movement Headquarters were disassembled and replaced by the National Reconstruction Movement Association.



It prescribed regulations and built reconstruction schools across the country. At a time when secondary education was not widely common yet, these schools provided secondary education.

Reconstruction schools gave learning opportunities to underage workers who did not attend school and helped them find a job. They ran a day or night program for three years. They learned school subjects for the first two years and prepared to get a job or advance to higher schools for the remainder. Tuition was free, and teachers were volunteers.

After the National Reconstruction Movement Association was disassembled in 1975, the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took charge of managing and supervising reconstruction schools. Reconstruction schools were renamed Saemaul youth schools by the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in 1976. They aimed to teach teenagers from poor family backgrounds who could not afford school education. Likewise, they adopted a day or night program that lasted two to three years.

Reconstruction schools and Saemaul youth schools took on the attributes of public sector-led charity facilities, thus finding it hard to operate consistently. The operational sustainability of these schools depended on philanthropists and sponsors. Otherwise, it took dedicated leaders or self-operating systems to sustain the operation.

As the formal education system took root, the dwindling popularity of non-formal schools caused the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to stop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schools in 1986. Among Saemaul youth schools, which had survived by then, some transformed into social educational facilities or private yahak schools while others spontaneously closed down.



Miscellaneous schools existed in high school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schools for youth provide teenagers who did not go to high school vocational and technical training. In 1966, education committees in each city and province installed and ran these schools. They often used facilities, equipment and premis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came along in the 1970s to teach teenagers who did not attend high school. They were non-formal educational organizations that provided education equivalent to vocational high schools. They involved commercial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technical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and industrial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As various non-formal schools spontaneously opened and autonomously operated, they started being deemed social educational or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Given that many of these organizations fell short of the mark to meet qualifications for the status of miscellaneous schools under the Education Act, it was hard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support them.

In response, the Lifelong Education Act prescribe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of school type in 2000. Literally, the term means school-type facilities for lifelong education. When they meet certain criteria, their diplomas can be officially recognized as educational credentials.

There are various authorize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the diplomas of which are officially recognized as of 2022. There are 3 facilities for elementary education having a total of 717 students. A total of 5 facilities for middle school education teach 1,505 students. For high school education, 22 facilities are in operation to teach 7,135 students.



We have reviewed miscellaneous school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at existed in history and school-type lifelong facilities. Foreign and alternative schools amo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classified as miscellaneous schools. In the past, teenagers who missed out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could learn in various types of schools such as reconstruction schools, Saemaul youth schools, vocational training schools for youth and professional training schools.

In 2000, the Lifelong Education Act defined school-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to help manage and support them. Since then, facilities, if qualified, have been allowed to become authorized educational organizations with their diplomas recognized. Next time, we will discuss schools attached to industrial firms and distance education. Thank you.



12-3 Schools Attached to Industrial Firms and Distance Education

Hello, everyone. In the previous lecture, we looked at non-formal schools classified as school-typ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This lecture will review special educational institutes financed by the government.

Schools attached to industrial firms are night-time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es founded and operated by these firms receiving various special benefits. They grew in numbers around the late 1970s, but they are non-existent today. The government has founded and financed correspondence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as correspondence colleges to provide distance education.

Schools attached to industrial firm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corresponding firms to educate their underage workers. In 1974, Hanil Girls' Vocational School by Hanil Synthetic Fiber in Masan and Chungnam Textile Vocational School by Chungnam Textile in Cheonan became the first of their kind.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companies to build these schools was to secure a stable labor supply.

Light industries such as spinning and sewing require a stable supply of labor. However, it was not easy to attract and retain enough workers steadily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wages. Thus, they opened affiliated schools to provide middle school graduates from poor or low-income families with learning and job opportunities.

Classified as vocational schools at first, they were recognized as formal night middle and high schools starting from 1977 as per the revised Education Act in the previous year. Receiving various benefits under the system, industry-affiliated schools prospered by the 1980s. Building these schools did not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school foundations. They could operate a short-length educational curriculum during the evening time.



As high school education became common while light industries, the owner of the schools, declined, they shrank in numbers. Some were transformed into formal middle and high schools while others closed down as companies faced financial difficulties.

Firms with over 1,000 employees on the payroll were qualified to build affiliated schools. If it is difficult to build and operate an independent school attached to industrial firms, special classes could be opened during evening hours in neighboring schools. Special classes, which were affiliated with firms meeting certain qualifications, accommodated their teenage workers.

Correspondence middle and high schools are formally recognized organizations to provide distance education. Students can take classes broadcast by EBS, engage in e-learning programs, attend offline classes and do self-driven learning. They are required to be physically present for class for 20 days per school year, thus at least twice a month. They take offline classes for six hours or so a day, every other weekend.

Correspondence high schools were first founded as part of 11 public high schools in Seoul and Busan in 1974. Relevant statutes to correspondence middle schools were enacted as per the revised Education Act in 2012. The first schools of their kind were opened as affiliated schools to public schools in 2013.

The graph shows the trends in correspondence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eir classes. The vertical axis on the left is the number of schools while the one on the right is the number of classes. The number of correspondence high schools was 40 by the late 1970s, growing to 50 in the early 1980s and later showing adjustments.



As of now, 40 schools are in operation. The number of classes has recently remained almost similar. Since the foundation of the first correspondence middle schools, they have increased considerably. As of 2022, there are 24 schools with 200 classes open.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NOU), a higher education organization designed for distance education, was founded as an affiliated college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in 1972. It was first classified as a two-year junior college. It comprised five departments: home economics, management, agricultur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with 12,000 new pupils accepted yearly.

In 1981, it was changed to a 5-year university for bachelor's degree programs. Separated from SNU in 1982, it created several departments for economics, law,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youth education. It adopted a four-year curricular system, just like other universities.

It runs a total of 36 departments. As of 2022, 96,748 students are enrolled, two-thirds of whom are women. The KNOU has graduate school programs in place and runs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tudents can take online classes or be physically present for class. Five departments have the prime college system where classes are available online only.

Cyber universities are run by private entities to provide higher education remotely. Korea's cyber universities came along as per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2001. With institutional reforms made, they were prescribed as an educational organization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in 2008. As of 2022, there are 19 cyber universities in Korea. Bachelor's degree programs are available in 17 cyber universities while the remainder provide associate degree courses. A total of 145,934 students are enrolled and 58% are women.



We have reviewed schools attached to industrial firms and distance education organizations. Companies installed schools attached to industrial firms to stabilize the labor supply. Teenagers who did not go to high school could get job opportunities and continue their studies.

Distance education has also prospered.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was founded in 1972. Correspondence high schools first came along in 1974 while correspondence middle schools were first opened in 2013, since which they have been actively in operation. Cyber universities, a privately run organization for distance higher education, have been in place since 2001. Next time, we will look into yahak schools in Korea. Thank you.



12-4 Yahak

Hello, everyone. In the previous lecture, we discussed special educational organizations financed by the government. This lecture will review yahak in Korea.

Yahak is a non-formal educational organization spontaneously created and independently run in Korea. That is, yahak often came along spontaneously and operated autonomously with financial or operational independence, providing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ut of school. This non-formal educational organization was generally referred to as yahak.

History says that yahak first appeared around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t has served its purpose in pace with the shifts made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 the Korean war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present. You may assume that yahak is short for night schools because the letter “ya” may remind you of “night.” However, yahak did not necessarily involve night schools.

Some schools provided yahak classes during the late afternoon. In this case, “yahak” used in the schools’ names stood for education provided out of school or in the fields (ya). Thus, yahak is more of a kind of non-formal education that has spontaneously started and independently developed to educate the Korean public at the grassroots level, rather than just a mere night school.

It has adjusted and kept up with the needs of the times since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industrialization to date. Let’s detail how the roles of yahak have changed over time.



Even elementary education was not accessible during the last period of Joseon Dynasty and under Japanese rule. Only the few were lucky enough to receive school education. Some intellectuals felt the need to promote education across the wider public, thus building schools in rural and urban areas to teach students basic literacy skills such as reading and writing. These spontaneously-born schools were the prototype of Korean yahak.

As the *v narod* movement spread in the 1930s, the yahak movement also increased across the country. *V narod*, which means "going to the people" in Russian, was a public enlightenment movement in Russia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Joseon's nationalists under Japanese rule realized by the 1930s that it matters to enhance the public's capabilities, which can start with the fight against illiteracy. Inspired by the movement, intellectuals visited each region to open yahak classes in the Korean language.

The colonial government was not supportive of the *v narod* movement as it implies nationalism, thus trying to replace it with the rural development campaign. Even after the *v narod* movement ended in 1935, training schools were in place to address illiteracy during the rural development movement. It is known that Sim Hun's "Evergreen Tree" unfolds against a backdrop of the yahak movement in rural areas.

Yahak is referred to as a private training school according to official records. Yahak spread further as there were only a few well-educated across society, with children and teenagers given few opportunities to receive an education. Starting from the 1960s, as we have already discussed, the government built reconstruction schools and Saemaul youth schools.



These schools were also a type of yahak founded as part of the government's social campaign. Although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volunteers, activists and philanthropists played a critical role in keeping them running. Given this, they are also referred to as government-made yahak.

This picture was taken at the commencement ceremony of Nonsan Reconstruction School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Given that the slogan in the background says, "Let's work and learn," it is presumed that the school provided a nocturnal program to workers. The phrase "For two years" gives us a hint that it took two years to graduate. The picture tells us that people from different walks of life studied together.

As the country took the path to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it became the norm that teenagers did not continue their studies but started working in factory line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raduates in rural areas relocated to cities and worked in factories. To help give learning opportunities to them, many yahak schools opened as well.

Here is a picture displayed on "Sisters' Street" in Beomil-dong, Busan. Female factory workers passed this street on their daily commute from nearby villages to Joseon Textile, which ran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the 1960s, and shoemaking factories.

The picture shows young female students sitting at a desk and a male teacher giving an elementary-level Korean class. It seems like one of the early years when Korean literacy classes were given in yahak school to young female workers who did not attend elementary school.



It was on November 13, 1970 when a 22-year-old man, Jeon Tae-il, cried out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must be observed. He put kerosene on the body and set himself on fire. Born to poor parents, he could not afford to finish primary school. At an early age, he started working as an assistant cutter and became a garment cutter in Pyeonghwa Market around Cheonggye creek.

He decided to join a labor movement to tackl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s for sewing workers. However, he was held back by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and had a hard time.

The death of Jeon Tae-il drove college students, intellectuals and other social activist groups into a state of shock. It led to increased attention to workers at the forefront. As a result, some activists built yahak schools to educate young workers and set up labor unions to run labor movements. As part of social campaigns, yahak schools were set up near factories or residential areas where young workers gathered. They were called "nodong yahak."

Around the 1980s, some argued that yahak schools should change from being led by college students to helping young workers mingle and find their path in life on their own. This is called "saenghwal yahak," meaning a kind of yahak education provided for the sake of young workers' quality of life.

"Geomsi yahak" focused on helping students prepare for equivalency examinations to get a middle or high school diploma. Yahak schools, which used to be reconstruction schools and Saemaul youth schools, were called reconstruction yahak and Saemaul yahak, respectively. These various types of yahak schools did not operate separately and exclusively to the fullest. They each had a mix of characteristics of yahak.



This picture shows students studying in yahak around the Cheonggye creek. This area was packed with small-sized sewing factories in Seoul. Likewise, the Myungdong and Sindang areas were also famous to have a large number of sewing factories. That is why many yahak schools were located in these areas. In sewing factories, many seamstresses and their female assistants worked along with cutters and their assistants, who were male workers.

As high school education became common, most teenagers got a high school diploma. Around the 1990s, few teenagers worked in the labor force. In addition, sewing factories and other light industry facilities were relocated overseas due to rising labor costs. As a result, yahak suffered change.

In the 2000s, many yahak schools closed down due to the decreasing number of factory workers. The remaining yahak institutes transformed into educational organizations that accommodate female adults who did not attend school when young. Following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was provided in yahak.

Here is a picture of female adults being guided on how to access Zoom on mobile at Sangrok Yahak in Seoul.

Since the 2000s, yahak has grown in scale to give learning opportunities to people with health conditions or impairments. Due to incomplete educational environments,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left poorly educated. To give them education, many yahak facilities are in operation. Some yahak schoo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tively engage in social movements to enhance their rights and benefits. This picture shows Nodeul School for people with health conditions or impairments.

We have reviewed yahak in Korea.



It is a spontaneous, autonomous and independent non-formal educational organization. Indeed, it represents a special kind of independent non-formal education aimed at enlightening people at the grassroots level in Korea.

Yahak served as an educational organization to accommodate people left not school-educated at a time when modern school education only benefited the few. Yahak dates back to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Many yahak schools opened and operated under Japanese rule and after liberation.

In the 1960s, the government promoted yahak. In the 1970s, various types of yahak spread including nodong yahak, saenghwal yahak and geomsi yahak to benefit teenage workers who did not attend school.

A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has become common across the country, yahak facilities serve as an educational organization for adults to improve literacy. Some yahak schools teach people with disabilities, not school-educated. Next time, we will have a review of the past 12 weeks' lectures before we finish the course. Thank you.



12-5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Hello, everyone. In the previous lecture, we looked at yahak in Korea. This lecture will sum up the last 12 weeks' classes.

We looked at how Korean school education has developed up to date. We studied the path taken in Korea's elementary, middle and higher school education systems based on various statistical data, with much focus on historical backgrounds and the government's policy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first and second weeks provided a general view of how the Korean school education system has shaped itself. The lectures also focused on the developments of pre-school, element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in Korea. We also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and the education finances for each of them.

Afterwards, we moved on to the focal issues regarding the gender-based gap in education, private education and high school standardization. Various examination results were referenced to discuss the achievements and prospects of Korean school education. Lastly, we talked about out-of-school education, or various non-formal school education.

Before the modern era arrived, Seodang and Sungkyunkwan had served as school-type institutions in Korea. However, they only benefited the few elite, not the general public. The government paid little attention to enhancing human capital among the general public by ensuring universal school education. With the outdated economic system focused on agriculture, there was a low demand for basic school education.



However, a change occurr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Joseon Dynasty chose to open the door to external cultures and becom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overnment embarked on the promotion of modernized school education with it in mind that education is the key to social reform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changes being made to economic environments, the demand for school education grew among the public.

It spiraled up under Japanese rule. The growing demand for school education was not fully met due to the absence of a sufficiently capable school education system. The colonial government and landlords with tax liabilities alike took a passive attitude toward education. At a time when children had to compete for elementary education, the government increased investments in schools as part of its colonial policy, leading elementary education to spread across a considerable share of men by the late colonial era.

After liberation, the Korean government made heavy investments in education. Around the late 1950s, elementary education, which was compulsory and free of charge, became universal, followed b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ducation afterwards. To fill in the gaps in school education, various non-formal schools were founded to provide great opportunities.

The fast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increased the demand for school education. As a result, promoting element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backed up by aggressive educational policy efforts was the key to enhancing human capital to boost economic growth further.



Korean education is still changing and advancing. Information technology, technological innov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and big data analysis are becoming part of life. This requires the formal education system to keep up with the shifts ceaselessly. In response, policymakers, students and teachers at the forefront of the shifts work continuously to adapt and improve on the positives that Korean schools have brought about.

Indeed, Korean school education produced desirable outcomes. From the perspective of quantitative growth, Korea has relatively high advancement rates and completion rates in higher educ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is among the top countries in the world in international examinations on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 considerable volume of financial investment is being made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government provides competent teachers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students by ensuring high-income levels.

Nevertheless, Korean school education is faced with many challenges. Private education is prevailing across the nation. However, whether time and money are efficiently invested in educating children needs to be seen. The country is still struggling with the overheated competition for admission. Educational divides are growing among income brackets, schools and regions. It is also important to carry out educational reform in line with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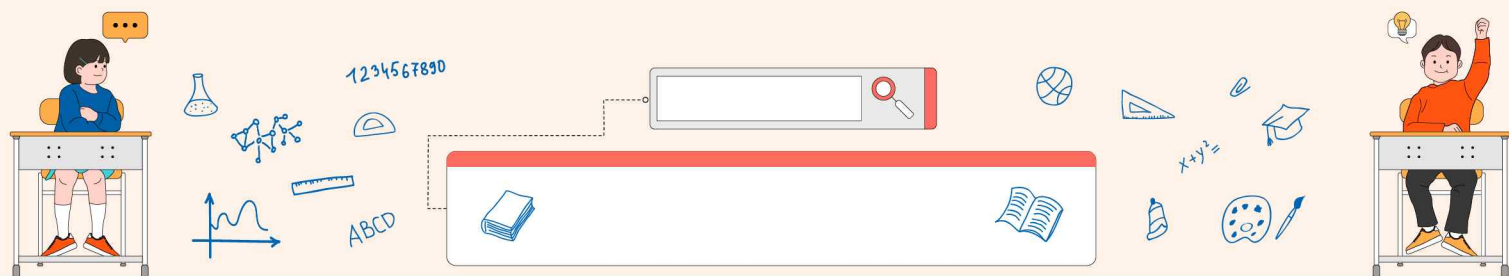
Let me finish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Thank you for being part of this journey for the past 12 weeks. I hope you have found this course helpful in better understanding the footsteps of Korean school education.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学校外的学校

非正规学校

教育法规定的学校种类，包括各类学校。各类学校不是小学、中学、高中，也不是公民学校、高级公民学校、技术学校、高级技术学校，是除了这些以外的学校统称的名称。因此，各类学校指的是没有具体规定的学校以外的所有学校，各类学校本身不能看作是一个具有特殊性质或意义的概念。

对各类学校只有进行相当于小学、初中、高中课程的教育的规定，没有具体的种类和形式上的规定。于是，各种非正规学校正式注册办学时，就被划分为各类学校。历史上曾经有过青年职业学校和专修学校。也有使用实业学校、专门学校的名称。

另外，为居住在韩国的外国人开设的外国人学校、为中断学习的儿童、青少年或希望接受适合个性的教育的学生开设的替代学校都属于各类学校。这些外国人学校和替代学校如果符合中小学教育法中的一定标准，随后将被批准为小学、初中和高中毕业认证学校。

此外，未在政府或地方政府注册而自行设立和运营的非正规学校也曾一度普遍存在。这里包括夜校和私人培训班。私塾是一所传统的教育机构，可以看作是这种非正规学校的一个例子。

就读学历不被认证的学校的学生，为了得到小学、初中、高中的毕业资格，必须得参加并通过国家考试。

在这次讲座中，我们先来了解一下法律规定的非正规中小学教育机构，即公民学校、高级公民学校、技术学校、高级技术学校。这些测试通常称为学历认证考试。除了就读于非正规学校的学生外，中断学业的儿童和青少年也参加学历认证考试。通常在学历认证考试学院等私立学院准备考试。我们还将讨论学历认证考试系统。其余各类学校和未注册的非正规学校，将在下一讲讨论。

公民学校是开设小学课程的非正规学校。主要的教育对象是未接受过初等教育的超龄人群。解放后，于1946年5月，颁布公民学校设立刚要后，正式设立了公民学校。起初分为三个部门：少年科、成年科、补修科。少年科的招生对象为13岁以上，学制2年或3年。它的运营课程与小学大致相同。

成人科的招生对象为年龄更大的18岁以上。一年或两年的课程，对公民、韩语和算术等一些科目进行集中教育。补修科面向13岁或以上的小学毕业生。换句话说，为未升入中学的人提供补修教育的一年制学校。补修科后来改编为高级公民学校。

公民学校可以由市、邑、面、洞、里等地方行政机关来设立，也可以由慈善家或社会团体来设立。由于公民学校的对象是没有接受过初等教育的人，所以主要的教育目标是写作、阅读和计算。



在殖民时期，小学教育受到很长一段时间的限制，所以解放后有很多未受教育的成年人，因此公民学校在基本读写教育中也发挥了重要作用。然而，随着基础教育的普及，需求逐渐减少，最后一所首尔YWCA基青公民学校于2012年关闭后，公民学校已不复存在。于2019年，在中小学教育法中也被废止并删除。

高级公民学校是开设中学课程的非正规学校。它始于1946年的公民学校补修科，并于1948年美国军政府颁布高级公民学校条例时正式成立。根据1949年的教育法规定，它是以小学毕业但未进入中学且已超过学龄人群为对象的教育机构。学习期限从1年到3年不等，根据学习期限，按照中学课程的内容来进行教育。

高中公民学校均可设立为公立或私立学校，但早期私立学校较多。然而，私立高级公民学校因财政困难而难以继续办学，几年内关闭的学校也很多。

于是，中学教育还没有充分普及的时候，政府还出资支援转为公立来运营。随着中学教育的普遍扩大，高级公民学校的数量有所下降。截至2022年，只有三所高中公民学校仍在运营中。

屏幕上的曲线图显示了公民学校和高级公民学校的数量趋势。解放后，公民学校如火如荼地建立起来。1946年为8287所，1947年增加到15506所。

但是，后来因法律修改和经历韩国战争后，在1953年减少到大约3000所，并且随着小学教育的普及，逐渐减少。最后一所公民学校于2012年关闭，现在公民学校已不复存在。

有记录显示，在韩国战争之前的1950年，有689所高中公民学校。韩国战争结束后，运营了大约有500所公民高中，但此后减少到300所左右，反复着增加又减少的过程。如前所述，当许多私立高级公民学校因财政困难而关闭或面临经营困难时，政府会提供资金支持或将其转为公办。

自1970年代，中学教育充分普及以来，高级公民学校的数量一直在稳步下降。到2022年，全国仍有三所高级公民学校在运营之中。



技术学校与普通中学并行，是以培养和确保技术和职业人才为目的的教育机构。是小学，即国民学校毕业后不上中学的人，或公民学校的毕业生可以入学的学校，学制一年至三年不等。

首先在1949年制定的教育法中规定，在农业、工业、渔业和其他四个部门共设立69个科。1977年修订教育法施行令后，除农业、工业、渔业、航运等外，还新设商业、家务、实业等领域后，改编为6个部门的51个科。技术学校毕业生要么找工作，要么继续上高级技术学校。

韩国战争结束后，技术学校的数量稳步增加，1965年达到81所。然而，随着小学毕业后升读中学的普遍现象，到70年代后期迅速减少，最后一所仅存的技术学校于1996年关闭，不复存在。之后，在中小学教育法中被废止并删除。

高等技术学校是高中课程的技术学校。这是一所为没有上过普通高中的人提供技术和职业教育的教育机构。中学毕业生或三年制技校毕业生可以入学，学习年限为1至3年不等。

1949年的教育法首次规定了高级技术学校。与技术学校一样，在农业、工业、渔业和其他四个部门共设立了69个科。1977年，修正教育法施行令后，在商业部门和家务、实业部门增设科室，改编为6个科室，总共运营了74个科。从1960年代到70年代初，运营了大约有70所高级技术学校。

1970年代后期，随着高中教育的扩大和职业高中的扩招，逐渐转换为职业高中，数量也逐渐减少。截至2022年，共有7所高级技术学校仍在运营中。

学历认证考试是一种没有完成正规学校教育的人参加考试获得与该学校毕业生同等资格的制度。有小学、初中、高中学历认证考试。

解放后，于1948年，首次实行了大学入学资格学历认证考试。这项考试是为了给那些没有上过学，而自学的人上大学的机会而实行的。此后，大学入学资格学历认证考试，高中入学资格学历认证考试、初中入学资格学历认证考试相继出台。顾名思义，这是一种无需从小学、初中或高中毕业也可以通过考试升入上级学校的制度。



他们的名字通常缩写为大检，中检，高检。但此后更名为毕业学历认证考试，而不是入学资格考试。大检更名为高中毕业学历认证考试，高检更名为中学毕业学历认证考试，中检更名为小学毕业学历认证考试。

自1970年代以来，参加学历认证考试的人数稳步增加。1971年，有1788人通过初中毕业学历认证考试，942人通过高中毕业学历认证考试。2013年，通过初中毕业学历认证考试的人数增加到13652人，通过高中毕业学历认证考试的人数增加到40511人。

通过高中毕业学历认证考试的人数比通过中学毕业学历认证考试的人数增长更快的原因与高考制度的变化有关。在高考制度中，反映高中内申成绩的比率增加时，外语高中等内申成绩竞争相对激烈的学校的在校生中，有退学后参加学历认证考试的情况。除此之外，还有可能是高中辍学人数的增加。

至此，我们介绍了韩国中小学课程的非正规学校的类型，其中，谈到了公民学校、高级公民学校、技术学校和高级技术学校。公民学校是小学，高级公民学校和技术学校是中学，高级技术学校是取代高中的非正规学校。

即使从这些学校毕业后，也得不到学历认可。但是，它们之间有相互的联系，所以有可能从公民学校毕业后就读高级公民学校，或者从专科学校毕业后就读高级专科学校。这些学校在学校教育不足时起到补充正规教育的作用，但随着中小学教育的普及而逐渐消失。

我们还考察了学历认证考试制度。学历认证考试制度最早是为了让自学的学生升学，但现在逐渐定格为对中小学各年级毕业能力进行鉴定的考试。

从1970年代以来，通过学历认证考试的人数稳步增加。下一次，我们将讨论各类学校。



12-2

各位学员，大家好！上次我们考察了非正规学校。这次，我们将着眼于分类为各类学校或学校型终身教育设施的非正规学校。

在中小学教育普遍扩大之前，也有很多除了公民学校、高级公民学校、技术学校和高级技术学校以外的学校。这些学校出于各种原因自发出现，对于像一些夜校类的小型自治运营的机构来说，在法律上如何规定它们并不重要。

然而，即使它不同与小学、初中或高中等正规学校，也不属于法律规定的公民学校，但它有时它须依法被正式承认为小学和中学课程的教育机构，各类学校就是为这种情况而在法律上规定的分类。

另一方面，在中小学教育普及以后，开始针对未上学的成年人开展中小学教育。这样，它就具有了终身教育的性质，后来在终身教育法中提出了学校形式的终身教育设施的概念。这次我们也一起来看看这些学校型的终身教育设施。

各类学校是相当于小学、初中、高中的学校。现行中小学教育法规定的各类学校包括外国学校 and 替代学校。这些学校根据满足各种要求的程度，有可能成为小学、初中、高中毕业的认可机构，也可能毕业后学生的学历不被认可。

其他学校也可归纳为各类学校，但没有具体的规定。可以视为其他范畴。纵观历史，中小学课程的各类学校通常是在民间自发设立的，名称也各不相同，如青年职业学校、专修学校等。这些学校毕业后，通常得不到学历认可，得必须通过学历认证考试才能升入上一级的学校。

此外，终身教育法还规定了以学校为形式的终身教育设施。在终身教育设施中，以学校形式运营的设施在满足一定设施标准的情况下，可以向教育监处注册，并像学校一样设置和运营。如果这些学校符合一定的标准，也可以成为毕业学历认证机构。当然，作为非认可机构运营的设施也很多。

外国学校是为居住在韩国的外国人设立和运营的学校。只是，在国外居住的时间超过3年以上的韩国人也可以申请入学。外国人学校只要符合韩语等教育课程要求和教师资格，就可以承认小学、初中和高中的毕业学历资格。截至2022年，全国共有39所外国人学校在运营之中。

也有外国教育机构。外国教育机构是为吸引外资，准备基础设施而设立和运营的学校。换句话说，目标是在自由经济区内设立学校，由此改善外国人的定居条件。

截至2022年，仁川经济自由区和大邱-庆北经济自由区设有中小学外国教育机构各一所。在仁川经济自由区内，还有4家外国大学设置的高中教育课程的外国教育机构。

此外，还有国际学校。国际学校是以提高国民的外语能力和培养国际化专业人才为目标，根据专门法律设立和运营的学校。目前，根据仅限于济州特别自治道的特别法，在济州岛内设立和运营。截至2022年，在济州特别自治道内运营的中小学国际学校共有4所。

替代学校最早是指出正规学校教育的局限性和问题，并提出改善方案来实行的一种学校。1990年代后期，出现了全日制替代学校，1998年起部分学校被定为特性化高中后被认可了高中毕业学历。

特性化高中最初分为开展职业教育的学校和替代学校，2012年起，职业高中全部转为特性化高中，现在主要指职业高中。中学也有被指定为特性化中学的替代学校。

不属于特性化中学或特性化高中的替代学校都被归类为各类学校。属于各类学校的替代学校，如果满足正规课程运作相关的要求，可获得认可，并得到正规学校毕业学历资格。非认可替代学校属于学历未认证学校，所以为了升入上一级别的学校，就必须参加学历认证考试。

城市的未认可替代学校通常针对失学青少年。因此，首尔市政府等地方政府选拔并支持这些替代学校，这些学校被称为城市型替代学校。

另外，还有如果上正规学校的学生想上替代学校的话，可以不辍学，而在替代学校接受委托教育，最后在原来就读的学校毕业的制度。以这种方式运营的替代学校是委托型替代学校。



截至2022年，认可替代学校，即属于各类学校的有学历认证资格的替代学校共有50所。有22所公立学校和28所私立学校。有运营小学、初中、高中的学校，还有运营综合课程的学校。

共有19所进行替代教育的特性化中学，其中公立学校为5所，私立学校为14所。进行替代教育的特性化高中共有25所，其中公立学校为5所，私立学校为20所。

未经认可或非认可的替代学校是自行运营的，因此不容易掌握现状。根据韩国国家人权委员会2018年的实况调查报告，全国共有287所非认可替代学校。同时，截至2022年，在开展城市替代学校支持项目的首尔失学青少年支援中心注册的替代教育机构共有57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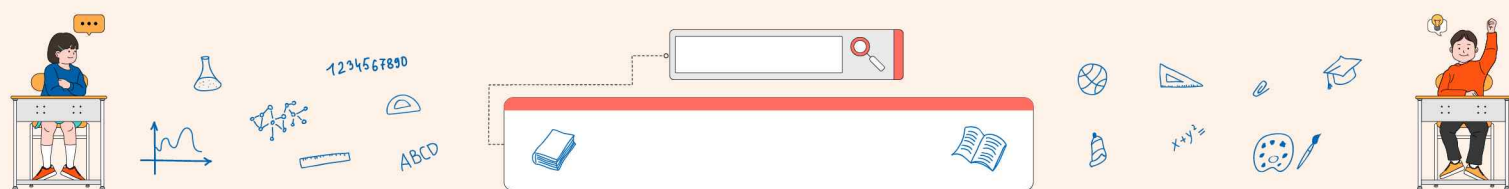
1961年5月16日，军事政变之后不久，军政府立即启动了重建国民运动。这是一个由政府来主导的国民运动，组织各区域开展了教育事业、志愿者活动、宣传、启蒙活动和生活改善事业。

1963年，朴正熙在总统选举中当选，通过之后举行的国会议员选中组成军政势力的民主共和党掌握了国会。因此，在第二年，即1964年解散了主导重建国民运动的重建国民运动本部，取而代之成立了重建国民运动中央会。

重建国民运动中央会规定重建学校，在全国范围内设立了重建学校。在中等教育尚未普及的条件下，重建学校承担了替代中等教育的角色。

重建学校旨在为未受过教育的劳动青年提供学习机会和就业安置。白天或夜间的为期三年的课程，其中两年是学科教育，剩下的一年是为就业或继续深造做准备。学费是免费的，教师都是志愿者。

1975年，全国重建国民运动中央会解散。因此，重建学校的指导和监督职能转移到新村金库联合会。1976年，新村金库联合会将重建学校更名为新村青少年学校。然后标榜为针对来自弱势家庭的未能上学的青少年进行教育的学校。仍然是白天或夜间进行教育，2年或3年制来运营。



重建学校和新村青少年学校是类似于政府主导的志愿者设施，因此要持续运营并不容易。持续运营需要有慈善家的支援，或有奉献精神的领导者，或者要具备有体系的运营制度。随着正规学校教育的普及，对非正规学校的关心也减少，1986年，新村金库中央会也终止了指导监督事业。当时的新村青少年学校，要么发展为社会教育设施或私立夜校，要么自行消失。

高中课程也有各类学校。青少年职业学校为未上高中的青少年提供职业技术教育。自1966年以来在各市、道教育委员会建立并运作，经常利用职业高中的设施、设备和教师。

1970年代以来，为未进入高中的青少年设立了专修学校，它是提供相当于实业高中教育的非正规教育机构。有商业职业学校、工业职业学校和实业职业学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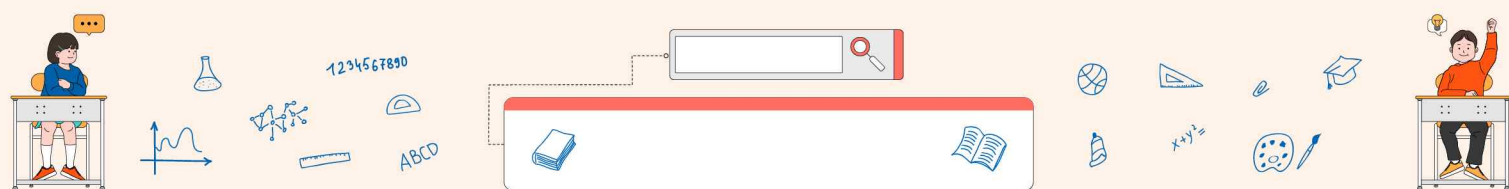
许多非正规学校自行设立并运营，逐渐被认为社会教育机构或终身教育机构。这些教育机构要获得教育法上的各类学校资格还有很多不足之处，因此对它们难以实行系统地管理和支持。

因此，自2000年起，终身教育法规定了学校形式的终身教育设施的概念。顾名思义就是以学校的形式建立的终身教育机构，如果满足一定的标准，给它提供成为学历认证教育机构的机会。

截止2022年，多数学历认证终身教育设施正在运作。小学课程有3个机构，共有717名学生。中学课程有5个机构，共有1505名学生。高中课程有22个，共有7135名学生。

以上整理了韩国历史上的中小学课程的各类学校和学校形式的终身教育设施。目前，小学和中学中，外国人学校和替代学校被指定为各类学校。过去有为失去接受正规中小学教育机会的青少年开设的重建学校、新村青年学校、青少年职业学校、专修学校等各类学校。

另一方面，自2000年以来，为了让满足一定标准的终身教育设施成为毕业学历认证教育机构，将学校形态的终身教育设施规定在终身教育法上，并进行管理和支援。下一次，我们将讨论行业附属学校和远程教育。谢谢。



12-3 产业附属学校及远程教育

同学们好。上次，我们考察了被归类为学校型终身教育设施的非正规学校。这次，我们将考察在政府的支持下运营的特殊教育机构。

产业附属学校是生产企业受各种特例而设立并运营的夜间中等教育机构。从70年代末开始增加了一段时间，现在已经不复存在了。政府设立广播通信中学、广播通信高中和广播通信大学来支持远程教育。

产业附属学校是生产企业为从事产业企业的青少年教育而设立和运营的学校。于1974年，韩一合成纤维厂在马山设立的韩一女子实业学校和忠南纺织株式会社在天安设立的忠南纺织实业学校并称为最早的产业附属学校。企业设立产业附属学校的最大原因是为了确保稳定的劳动力。

纺织、缝纫等轻工业需要稳定的劳动力供应，但由于劳动条件差、待遇低，人员流动频繁，难以保障劳动力。因此，通过建立产业附属学校，为中学毕业的贫困和低收入阶层的青少年提供就业和接受学校教育的机会，并以此确保劳动力。

最初是作为实业学校设立的，但于1976年通过教育法的修改确立制度后，从1977年开始设立了正规的夜间中学和高中。直到1980年代，在各种优惠政策下，实业附属学校一直积极运作。没有学校法人也可以设立学校，并且可以通过夜间制来缩短教育课程。

但随着高中教育的普及和运营实业附属学校的轻工业产业的衰落，逐渐消失。有的学校转为普通初中和高中，有的学校因企业的经营困难而停办。

产业附属学校由拥有1,000名以上员工的企业建立和运营。在难以独立设置和运营产业附属学校的企业，将在附近的学校设立特别班，在夜间运营。生产企业特别班的招生对象是具备一定条件的行业青少年。



广播通信中学和广播通信高中是以远程教育形式提供的正规初中和高中。课程包括利用EBS的广播讲座、计算机通信学习e-learning、线下授课和通过自学进行的自力学习。其中，每个年级至少参加20天以上，即每月至少参加两次线下授课。线下授课每天举行六个多小时。通常在周末隔一周进行一次。

广播通信高中于1974年在首尔和釜山，作为11所公立高中的附属学校成立而正式开始。广播通信中学于2012年通过教育法的修改奠定了法律基础，并于2013年首次作为公立学校的附属学校的形式正式开学。屏幕上的曲线图显示了广播通信中学和高中的数量和这些学校的班级总数的趋势。

左纵轴代表学校数，右纵轴代表班级数。广播通信高中的数量在70年代末达到40所，80年代初达到50所，之后又有了调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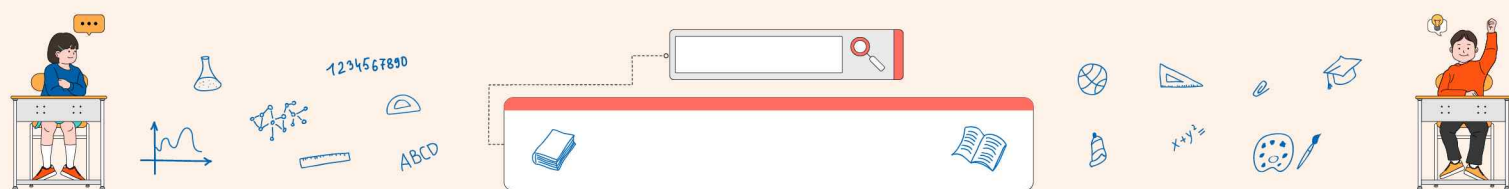
目前，大约有40所广播通信高中正在运营中。班级的数量也保持在相似的水平。广播通信中学自2013年创办以来，也有了长足的发展。截至2022年，学校数量为24所，班级数量为200个。

韩国广播通信大学是一所远程高级教育机构，于1972年，以首尔国立大学的附属韩国广播通信大学来设立的。起初，是两年制的初级大学课程。设有家务系、经营系、农学系、初等教育系、行政学系等5个学科，入学名额为12000人。

1981年改制为本科院校，学制改为五年。1982年从首尔大学分离而独立运营，增设了经济学系、法学系、英语系、幼儿教育系。1991年改制为与其他大学一样的四年制。

韩国广播通信大学现在共有36个系。2022年在校生人数为96,748人，其中女性占三分之二。韩国广播通信大学还设有研究生院和商学院。同时进行线上授课和线下授课，100%在线授课的PrimeCollege也在进行五个专业。

还有一所私立远程高等教育机构-网上大学。根据终身教育法，于2001年韩国出现了第一所网络大学。此后，经过整顿制度，自2008年起成为高等教育法规定的教育机构。截至2022年，韩国共有19所网络大学在运营之中。本科专业有17个，2个是大专的专业学士课程。在校学生总数为145934人，其中约58%为女性。



以上，我们总结了产业企业附属学校和远程教育机构。企业设立产业附属学校是为了确保劳动力。没有升入高中的青少年上工业学校的话，可以获得参加工作和接受教育的机会。

同时远程教育也在积极开展。韩国广播通信大学于1972年，广播通信高中于1974年，广播通信中学于2013年建立，正在积极运营。网络大学作为私立远程高级教育机构，于2001年成立后一直运营当中。下一次，我们将考察韩国的夜校。谢谢。



12-4 夜校

各位学员，大家好！上次，我们考察了在政府支持下运营的特殊教育机构。这次，我们将看看韩国的夜校。

夜校是韩国的自生、自律而独立的非正规教育机构。在中小学教育之外自发产生、自主经营、财务和经营基本独立的非正规教育机构，通常被称为夜校。

大韩帝国末期就开始出现对夜校的记载，夜校从殖民时代、战争时代、工业化和经济高速发展时代到现在，随着时代的潮流而变化，发挥着自己的作用。当我们说夜校时，通常认为它是夜间学校的简称。然而，夜校并不总是只在夜间授课的教育机构。

也有白天开办的夜校，这些学校的名称也有在校外、野外或正规学校以外进行教育的夜校（野校）的意思。因此，与其将夜校简单地理解为夜校，不如将它视为在韩国自生、自发演变而来的的民众教育、草根教育、独立非正规教育的代表形式更为恰当。

夜校随着朝鲜后期、殖民时代、解放后时代、工业化时代乃至现在的时代不断变化。让我们来看看夜校在每个时代扮演了什么样的角色，又经过了怎样的变化。

大韩帝国末期和殖民时代是连初等教育机会都不充分的时代。学校教育通常集中在少数被选择的人身上。在这种情况下，一些知识分子关注了更广泛的大众受教育的必要性，并深入到农村和城市办学，提供阅读、写作等基本素养教育，这些自生的非正规学校就是韩国夜校的原型。

1930年代，随着“到群众中去”运动的展开，夜校运动也得到了积极的发展。Vnarod是俄语，意为‘到民众中去’，指的是19世纪末发生在俄罗斯的大众启蒙运动。

在1930年代，殖民地朝鲜的民族主义者们认为有必要加强民众的力量，并认为出发点是摆脱文盲状态。于是，参与运动的知识分子到各地去开夜校，教韩语。



日本驻朝鲜总督府对民族主义的“到群众中去”运动并不友好，试图通过发起农村振兴运动来取代“到群众中去”运动。因此“到群众中去”运动于1935年终结。但是，农村振兴运动也建立了培训中心开展了读写教育。沈熏的小说“常绿树”就是以这个时期的农村夜校为背景写的。

夜校经常作为私立培训中心出现在官方记录中。有许多未受过教育的人，儿童和青少年的教育机会仍然有限的时期，夜校的建立和运作仍在继续。1960年代后，如前所述，在政府的主导下重建学校和新村青年学校相继成立。

这些学校是作为当时政府发起的社会运动的一部分而建立的，也是一种夜校。虽然是政府主导设立的学校，但实际运作还是离不开有热心的志愿者、活动家和当地慈善家的支持。因此这些学校通常被成为官制夜校。

照片是1971年忠清南道论山复兴学校的毕业典礼纪念照。在背景写的“学习和工作”这句话说明，那是为劳动者开设的夜校，从右侧写的“两年”的字样，可以看出学制是两年。看照片中的面孔，好像各种各样的学生在一起学习。

自1960年代以来，随着工业化进程的推进，许多青少年抛弃升入上一级的学校，而是就在工厂找工作。农村地区的孩子小学或中学毕业后到有工厂的城市来找工作也很普遍。为这些劳动青少年开设的夜校也很多。

照片是釜山凡一洞“姐妹的路”墙面上展示的照片。据说，从殖民时期到1960年代，在大型工厂-朝鲜纺织厂和附近的制鞋厂工作的女工们都是通过这条路从附近的村庄来来往往的。

照片里坐着年轻的女学生，一名男教师正在上小学低年级水平的韩语课。这似乎是很早以前在夜校对小学未毕业的年轻女工进行韩语识字教育的场景。

1970年11月13日，时年22岁的全泰一在清溪川平和市场前一边喊着‘遵守劳动基准法’，一边往自己身上浇汽油自焚。家境贫寒的全泰一因家境困难从小学辍学，从小就在清溪川平和市场附近的一家缝纫厂做裁缝和裁缝助理。



为改善缝纫厂恶劣的工作环境和待遇，全泰一开始了工人运动。然而，遭到雇主和政府的双重压迫，最终做出了自焚的极端选择。

全泰一自焚事件对当时参加社会运动的大学生和知识分子来说是一个巨大的冲击。人们对劳动现场的关心日益增加，一部分人针对年轻工人建立夜校、组织工会并开展了工人运动。作为社会运动的一部分，在工厂附近或劳动青年密集地区开设的夜校被称为劳动夜校。

1980年代开始出现了大学生知识分子与其领导劳动青年，不如跟他们打成一片，让劳动青年自己探索自己的未来的意见。以这种方式运作的夜校被称为生活夜校。

侧重于帮助那些没有升入初中或高中的人准备学历资格认证考试的夜校就学历认证考试夜校。以前的重建学校和新村青少年学校的夜校教重建夜校和新村夜校。这些夜校并不是完全脱离，而单独运作。大多数是各种性质混合在一起的。

照片是1970年代清溪川夜校上课的场景。首尔的清溪川一代是小型缝纫厂集中的地方。同样，南山附近的明洞和新堂洞也有很多缝纫厂。所以这个地区有很多夜校。在缝纫厂里，做缝纫机或缝纫工的女工很多，但也有做裁缝或裁缝工的男工。

随着高中教育的普及，大多数年轻人都能高中毕业，到1990年代，青少年工人几乎消失了。此外，随着缝纫产业等轻工业工厂因劳动力成本上涨而向海外转移，夜校也发生了变化。

为工厂的工人开办的许多夜校在2000年代都被关闭，剩下的夜校改造成为年轻时没上过学的成年女性提供的教育机构。因此，成人读写教育和随后的中小学教育成为重点。

这张照片是在首尔常绿夜校，向成人女性在说明如何利用手机参加Zoom会议的场景。

另一方面，进入2000年代以后，为无法上学的残疾人开设的夜校也大量增加。由于韩国的特殊教育条件还不充分，有很多残疾人没有享受到学校教育，因此正积极地运营面向这些群体的残疾人夜校。为保障残疾人权益，一些残疾人夜校积极开展社会运动，。照片是首尔Nodeul(金黄山的田野)残疾人夜校的一堂课。



以上，我们了解到了韩国的夜校。

夜校是韩国自生、自律的独立非正规教育机构。民众教育、草根教育和独立的非正规教育可以看作是在韩国发展起来的特殊形式。

现代学校教育出现后，还有很多人还无法获得教育机会的时候，夜校为那些没能获得教育机会的人起到了教育机构的功能。最早出现于朝鲜末期，在殖民地时期和光复后也设立了有不少夜校。

1960年代后出现了政府主导的夜校，1970年代后为那些没能上学的青少年以劳动夜校、生活夜校、学历资格认证考试夜校等形式来运作。

中小学教育普及的今天，它已经转型为成人教育机构，正在进行读写教育。还有为未接受过学校教育的残疾人设立的夜校。下一次，我将最终总结和总结过去12周的内容。谢谢



12-5 한국经济与学校教育

同学们好。上次，我们考察了韩国的夜校。这一次，我们整理并完成过去12周的讲座内容。

在本次讲座中，我们考察了韩国学校教育是如何发展成今天的形式。通过各种统计数据回顾了韩国小学、中学和高中教育的发展过程，重点讨论了作为背景的历史条件和政府对中小学教育和高中教育开展的政策。

第一周和第二周概述了韩国的学校教育体系和形成过程。我们分别考察了幼儿、中小学和高中教育的转型。还分别审查了教师和教育财政。

之后，讨论了缩小男女教育差距、私教育和与高中平均化相关的问题，并使用各种考试成绩讨论了韩国学校教育的成就和挑战。最后，我们考察了学校外的学校，也就是各种各样的非正规学校教育。

在近代之前，韩国就已经形成了学堂和成均馆等学校教育。但是，那些教育是为被选择的少数人的教育，并没有成为针对所有人的教育。政府不关心以普及学校教育来增强全民人力资本，在落后的农业中心经济体制中，对基础学校教育的需求也不高。

但在19世纪末，韩国打开国门并成为全球经济的一部分时，变化就开始了。政府认识到社会改革和经济发展需要促进教育，就开始推行现代学校教育。随着经济环境的改变，大众对学校教育的需求也随之增加。

在殖民时期，加速了这些变化。学校教育的需求迅速增长，但没能提供足够的学校教育。无论是殖民地政府，还是要为教育纳税的地主，都很消极。在连小学入学都要竞争的情况下，政府作为殖民政策的一部分增加了对学校教育的投资，到殖民末期，男性小学教育有所普及。

解放后，韩国政府积极投资教育事业。1950年代末，作为无偿义务教育，初等教育普遍扩大，随后初中教育和高中教育也普遍扩大。在此期间，当学校教育机会不足时，设立诸多非正规学校来填补空白。



韩国经济的快速增长是带来对学校教育高需求的主要原因，同时通过积极的教育政策来扩大中小学和高中教育是积累韩国经济快速增长的人力资本的核心。

韩国教育的变革和发展仍在进行中。在信息和通信技术创新、人工智能开发以及大数据分析的使用等变化的环境中，不断被要求对中小学和高中教育做出适当的反应。在教育领域，政策制定者、学习者和教师都在不断努力，以适当应对不断变化的环境，并继续发挥韩国学校教育迄今发挥的积极作用。

韩国的学校教育取得了很多成就。目前数量上的扩张反映在全球范围内较高的高等教育入学率和完成率上。评估学业成就的考试成绩也在世界上名列前茅。对中小学教育的财政投入水平也很显著。教师的薪酬水平也很高，为优秀的教师提供了投身于教育领域的机会。

另一方面，韩国的学校教育也有面临的挑战。私人教育的扩散，时间和金钱是否有效地投入到孩子的教育中都成为疑问。过度激烈的高考竞争也让人担忧。基于收入水平、学校和地区之间教育差距拉大的问题也很严重。根据不断变化的经济环境，妥善开展教育改革也是非常重要的任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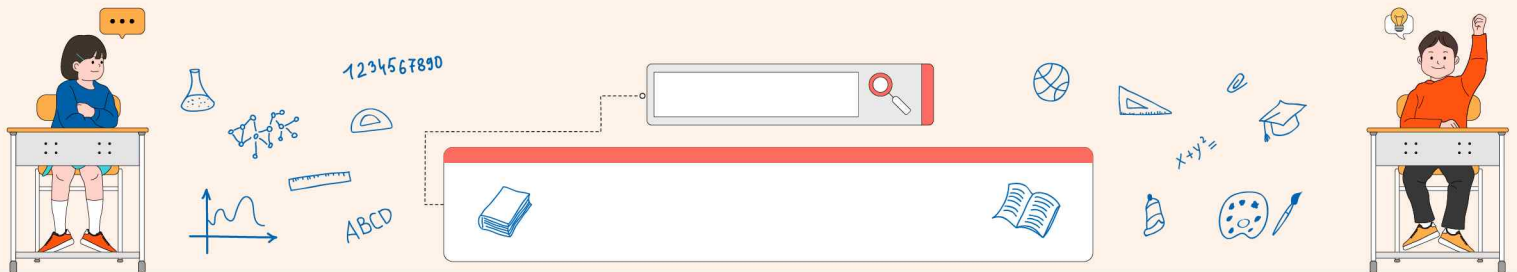
《韩国经济与学校教育》的所有讲座就到此为止。感谢一起度过的12周时间。希望这次的讲座是让大家进一步了解韩国学校教育的形成和发展过程的有益的时间。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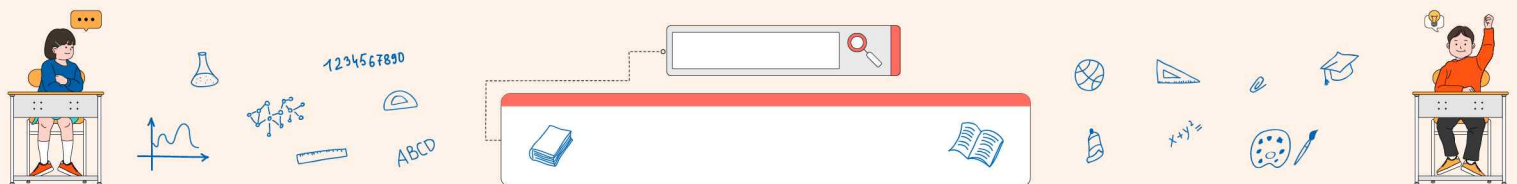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1 한국의 학교 교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초등 과정 비정규학교였던 공민학교 중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모두 있었다.
- ②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었다.
- ③ 기술학교는 중학교 과정 실업교육기관으로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입학할 수 있었다.
- ④ 고등기술학교는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및 실업교육기관이었다.

정답 ②

해설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으로 운영되었지만, 졸업학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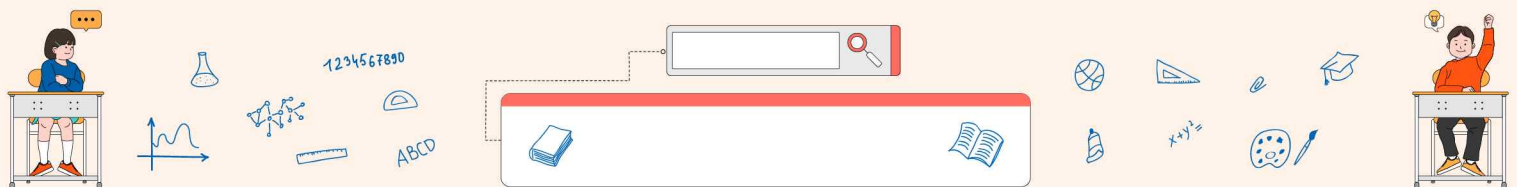
02 한국의 학교 밖 교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졸업시 초·중고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다.
- ②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교 졸업 학력 인정기관이 될 수 있다.
- ③ 재건학교와 새마을청소년학교는 정부에서 설립하여 운영했다.
- ④ 청소년직업학교와 전수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였다.

정답 ③

해설 재건학교와 새마을청소년학교는 관 주도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지만, 자원활동가의 헌신과 독지가의 후원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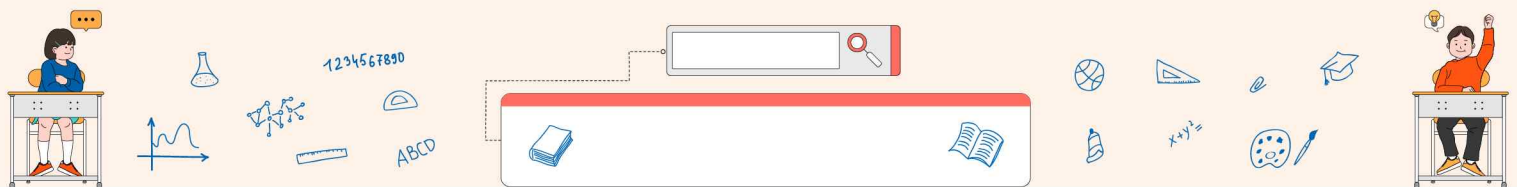
03 한국 교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산업체 부설학교는 주로 경공업 산업에서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였다.
- ② 산업체 부설학교는 학교법인 없이도 설립이 가능했고, 야간제로 교육과정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 여러 특혜를 받았다.
- ③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공립 고등학교 부설로 설치되었고, 학생들은 매 학년 출석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
-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학사과정, 사이버대학교는 전문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학사과정 이외에 대학원 과정도 있고, 사이버대학교의 대부분은 학사과정을 운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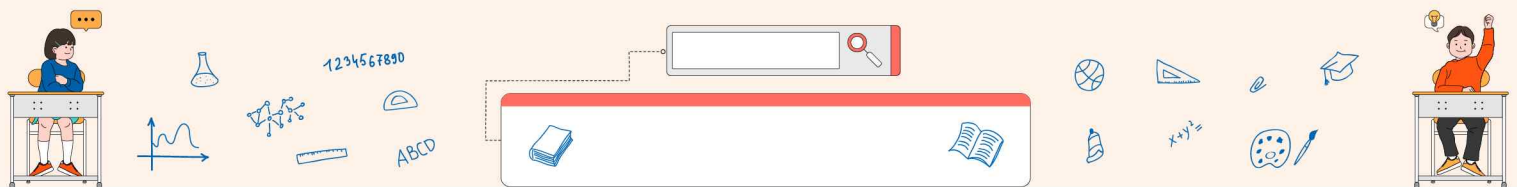
04 다음 중 한국의 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재건학교와 새마을청소년학교 등은 관제야학으로 불리기도 했다.
- ② 야학은 식민지기 이전에도 존재했다.
- ③ 1970-80년대에는 노동야학, 생활야학, 검정고시 야학이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 ④ 최근에도 비문해 성인과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야학이 운영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1970-80년대 야학들은 지향하는 목표와 운영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노동야학, 생활야학, 검정고시 야학 등으로 나누어졌지만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는 여러 성격이 혼재된 야학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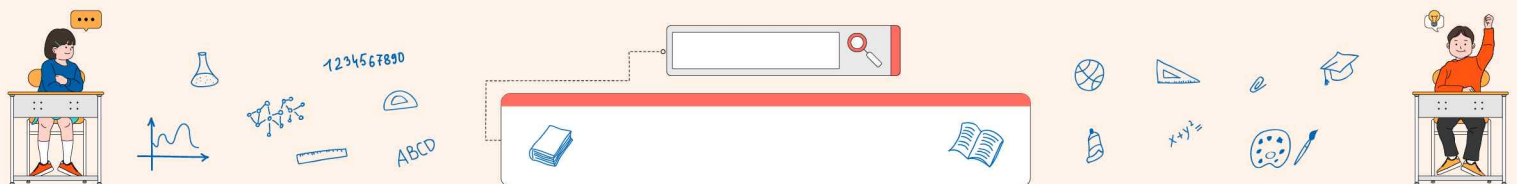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5 한국 학교 교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한국의 보편화된 학교 교육의 역사는 서당과 성균관으로부터 출발한다.
- ② 식민지기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만큼 학교 교육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
- ③ 한국 학교 교육의 확산 과정에서 교육 기회가 아직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을 때에 여러 비정규 학교들이 설립되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 ④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교육정책으로 확대된 초중등 및 고등교육은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한 인적자본 축적의 핵심이었다.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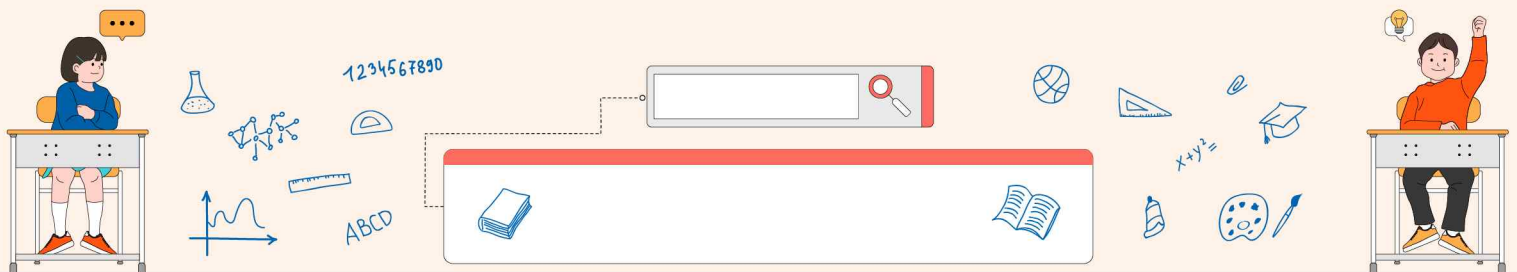
해설 과거부터 존재했던 서당과 성균관은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한 학교였고, 다수의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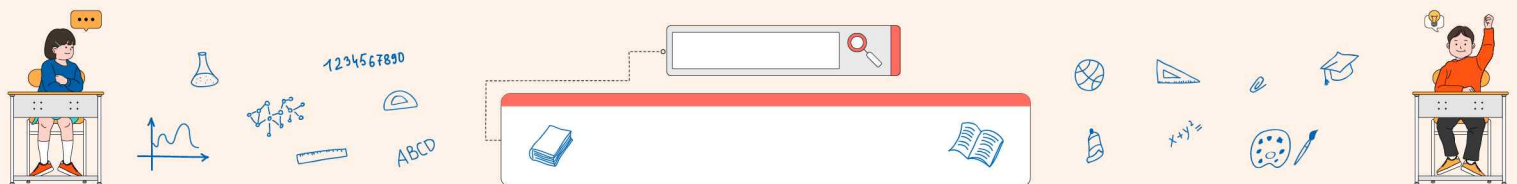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주제

한국 학교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환경에 학교 교육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날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직면한 과제를 한 가지 선택해서, 학교 교육은 그 과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 변화해야 할지 설명해 보세요.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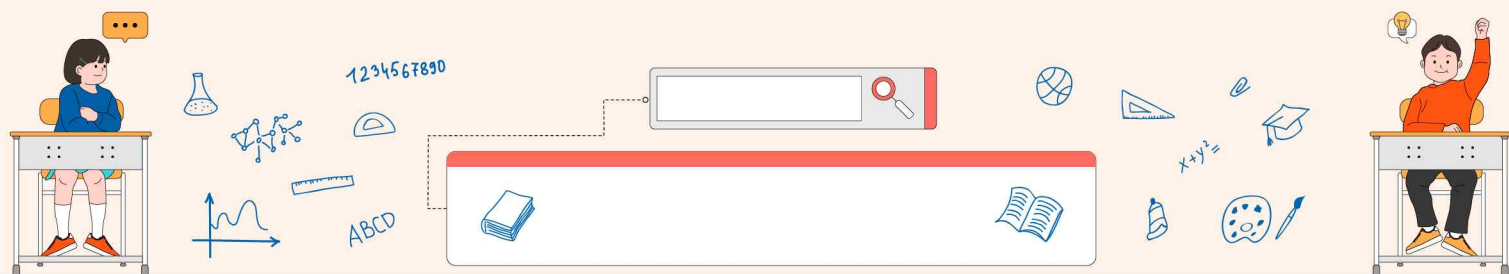
우리는 현재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혁신,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른 격차 확대, 출산율의 하락과 인구 고령화, 국제인구이동의 증가와 다문화 교육 수요 증가 등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학교 교육은 그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의 교육 정책, 교사, 학생, 학부모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재정과 행정을 포함한 교육 제도도 바뀌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김한성. 2010. 나? 대안학교 졸업생이야! 글담출판.
- 김형목. 2018. 배움의 목마름을 풀어준 야학운동. 서해문집.
- 조영래. 1991. 전태일 평전. 돌베개.
- 천성호. 2009. 한국야학운동사. 학이시습.
- 한송희. 2001. 민중교육의 형성과 전개. 교육과학사.

영상

- EBS Documentary (EBS 다큐). 교육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 3부, 이우학교 이야기.

<https://youtu.be/-3H08ZO71Sg>

- KBS충북. [KBS 다큐공작소] 양백: 여전히 찬란한.

<https://youtu.be/CB53EyJNnvs>

- TBS 시민의방송. [희망다큐] 32회_상록야학.

https://youtu.be/_gJthSDNDXo

